

반도체 조정 및 섹터 로테이션, 주말간 중동 긴장 재발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이어지는 반도체 조정 한편, 건강한 순환매 해석도

- 미 증시는 DOW -0.09%, S&P500 -0.05%, NASDAQ -0.24% 하락. 헬스케어, 필수소비재, 임의소비재 등 강세, 기술주, 산업재 등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-5.3%. 오픈AI 상장 일정 지연 가능성 언급되며 투심 약화. 반면, S/W ETF +4.1% 저가매수세 유입
- S&P500 동일가중지수 +0.4%, 주간성과 역시 S&P500 지수 대비 +3.4%p 아웃퍼폼. 기술주 쓸림이 소외섹터 및 중소형주로 순환되는 양상. 찰스슈왑 등은 증시 방향성 전환보다는 건강한 로테이션으로 해석

오픈 AI IPO 연기 가능성, AI 인프라 Capex 지속성 우려 재점화

- 뉴욕타임즈는 오픈 AI 가 내부가치평가 및 수익화모델 재정비 등 이유로 상장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. 기존 IPO 예정 시점은 9월
- 최근 AI 투자 수익성과 인프라 지출 지속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 속 오픈AI 소식에 의한 투심 위축
- 오픈 AI IPO 지연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관사 모건스탠리(-4.1%), 골드만삭스(-4.3%) 등 약세. 다만, 오픈 AI 초기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(+5.7%)는 전거래일 제품가격 인상에 의한 약세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상승

국제유가 하락 지속, 다만 주말중 미-이란 공습 지정학 긴장 ↑

- 종전 MOU 체결후 호르무즈 해협 적체 화물선 통과 진행되며 국제유가 하락 지속 WTI \$69.2(-3.7%) Brent \$72.0(-4.3%)
- 금요일 장 마감후 보도된 미국의 이란 무력 공습. 앞서 25일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나, 이후 주말간 미-이란 간 보복성 무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중동상황 전개 및 유가 방향 불확실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S	모건스탠리	-4.1%	오픈AI IPO 연기 가능성에 주가 약세. 오픈AI는 올 가을로 검토하던 상장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. IPO 지연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IPO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(-4.3%) 주가 약세. 트루이스트는 IPO 시점 분산이 오히려 '27년 실적 역기저 부담을 완화하는 순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
AAPL	애플	+3.1%	전일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주가 급락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. UBS, 에버코어 ISI 등은 제품 가격 인상 이후에도 투자이건 및 목표주가 유지. 한편 칩 비용부담 축소 위해, 미국방부 블랙리스트(1260H)에 등재된 중국 창신메모리로부터 칩을 조달하고자 백악관 및 상무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로비를 진행 중이라는 FT 기사 보도. 또한 Vision Pro와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를 총괄해온 부사장 폴 미드가 오픈AI로 이적한다는 소식 발표
META	메타	+1.4%	자체 예측시장 앱 '아레나' 개발 위해 폴리마켓·칼시와 파트너십 모색 중. '아레나'는 실제 금전 대신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, 18~34세 중심의 월간 활성 사용자(MAU) 1억 명 유치를 목표. 또한 향후 페이스북 및 메신저 등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해당 기능의 통합을 계획 중
MRNA	모더나	+12.6%	사이언스 데이 행사에서 백신 사업 부문을 넘어선 mRNA 기반 항암 및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 등 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주가 급등. 파이퍼센더는 사이언스 데이 발표를 언급하며, 파이프라인 진행에 목표주가 \$69→\$77로 상향 조정, 투자이건 '비중확대' 유지
ON	온세미컨덕터	-23.7%	시넵틱스(-3.7%)를 전액 주식교환방식으로 인수한다는 계획 발표 이후 주가 급락. 인수는 \$7B 규모이며, 온세미컨덕터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. 인수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에 주가 약세